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탄소가격제 현황 및 최근 동향
망 중립성 논란과 향후 전망

국제금융시장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탄소가격제 현황 및 최근 동향	1
망 중립성 논란과 향후 전망	3

국제금융시장	5
--------------	---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9
--------------------	---

탄소가격제 현황 및 최근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유지혜 (ester80@kdb.co.kr)

- ◆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 등 기후목표 달성계획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행 방안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탄소가격제(Carbon Pricing Initiative) 도입이 확산세
- ◆ 탄소가격제는 '오염자 지불(polluter pays)' 원칙에 따라 시장 메카니즘을 활용해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성공적인 탄소가격제는 'FASTER 원칙'이라는 6가지 특징 존재
- ◆ 탄소가격제 유형 중 배출권거래제(ETS)와 탄소세가 가장 일반적이나 최근 민간 기업 중심으로 배출량 감축분을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크레딧(Crediting) 메카니즘이 주목

□ '19년부터 주요국 정부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확산세이며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탄소가격제의 적용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

- '20.5월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*에 따르면 전세계 46개 국가, 32개 지방정부가 61개 탄소가격제(Carbon Pricing Initiative)를 실행하거나 도입 예정
 - * World Bank Group('20.5), "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"
 - '20년 탄소가격제 적용대상은 전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2%(12GtCO₂e*)를 차지하며 61개 탄소가격제는 31개 ETS와 30개 탄소세(Carbon Tax)로 분포
 - * GtCO₂e(Giga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) : 온실가스 배출통계 측정단위는 이산화탄소 환산톤(tCO₂e)이며 GtCO₂e는 10억 이산화탄소환산톤을 의미.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를 지구 온난화지수(CO₂=1, CH₄=21, N₂O =310 등)를 이용하여 CO₂에 상당하는 온실효과로 환산
 - '20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주 단위 탄소가격제 도입, 멕시코의 ETS 파일럿 도입 등 아메리카 대륙 중심으로 탄소가격제 도입이 증가세
 - 전세계 탄소가격은 이산화탄소환산톤당 1 ~ 119달러 범위에 있고 대부분은 10달러 이내 수준이며, '19년 탄소가격제로 발생한 수익은 총 450억달러 규모
-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한 저탄소 전략 추진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탄소 가격제 적용이 확대 추세
 - '20.1월 유럽에서는 스위스 ETS와 EU ETS가 연결되었고, 이를 통해 스위스 ETS 규제 대상이 EU ETS에서 거래 가능
 - 전세계 14,500개 이상 크레딧(Crediting) 프로젝트*가 진행 중으로 거래가능한 배출권 감축분에 해당하는 누적 탄소 크레딧은 40억tCO₂e 규모 수준
 - * 크레딧은 기업이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(Offset) 목적으로 사용되었고, 과거 5년간 청정개발체제(CDM) 유래 숲 조림부문(42%)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, '19년 들어 발행 크레딧의 2/3가 민간에서 차지

□ **탄소가격제(Carbon Pricing Initiative)는 ‘오염자 지불(polluter pays)’ 원칙에 따라 시장 메카니즘을 활용해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을 의미**

- 탄소가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염자가 탄소발생을 줄이는 금전적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 발생을 억제
 - 잘 설계된 탄소가격은 ① 환경보호, ② 청정기술 투자유도, ③ 수익 거양의 3가지 장점 존재

성공적인 탄소가격제를 위한 FASTER 원칙

구분	세부내용
Fairness(공정성)	· ‘오염자 지불’ 원칙을 구현하고 이익과 비용이 공정하게 배분됨을 보장
Alignment of policies and objectives (정책연계성)	· 탄소가격제는 기후관련 또는 기후관련외의 광범위한 정책적 목표와 연계하여 추진 필요
Stability and predictability (안정 및 예측가능성)	· 견고한 정책 체계 안에서 투자자들에 명확하고 일관된 강한 시그널을 보일 필요
Transparency(투명성)	· 투명한 탄소가격제 설계 및 이행
Efficiency and cost-effectiveness(효율성)	· 비용 감소 및 배출량 감축에 경제적 효율성 증가
Reliability and environmental integrity (환경정합성)	· 환경에 해로운 활동이 측정가능한 수준으로 감소

주 : 세계은행과 OECD가 공동으로 다양한 지역의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탄소가격제의 6가지 특징을 도출
 자료 : 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ition 홈페이지

□ **탄소가격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, 프로젝트, 기업들은 각 정책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선택**

- 탄소가격제의 5가지 유형 중 ETS와 탄소세가 가장 일반적이나 최근 민간 기업 중심으로 크레딧(Crediting) 메카니즘이 주목

탄소가격제(Carbon Pricing Initiative)의 5가지 유형

구분	상세
탄소세(Carbon Tax)	·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부과를 통해 청정에너지 사용 전환 인센티브 부여(가격 고정, 감축량 불확실성 존재)
배출권거래제(ETS)	· 특정부문의 총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달성(감축량 고정, 가격 불확실성 존재)
크레딧(Crediting) 메카니즘	· 프로젝트 결과물로 발생한 배출량 감축분을 제3자 검증을 거쳐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 판매
RBCF(Results-Based Climate Finance)	· 사전에 설정된 감축목표를 달성(제3자 검증 필요)할 경우 자금지원을 받는 구조로 RBCF를 통해 민간부문 탄소시장 활성화
내부 탄소가격제 (Internal carbon pricing)	· 정부나 기업 등이 탄소사용에 자체 내부가격을 설정 및 반영하여 저탄소 기술에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의 기후 정책과 규제를 대비

자료 : 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ition 홈페이지

망 중립성 논란과 향후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정 회 훈 (credit@kdb.co.kr)

- ◆ 글로벌 CP로 인한 트래픽 급증으로 ISP와 CP가 망 이용료를 놓고 대립하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발생하였고, 5G에 대한 망 중립성 완화에 대해서도 ISP와 CP간 입장 차이 존재
- ◆ 망 이용료에 대해 ISP의 입장을 옹호한 넷플릭스법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, 5G 연관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와 세계적 추세 감안시 한국은 망 중립성 완화 전망

□ 글로벌 CP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ISP와 CP의 대립으로 망 중립성 논란이 발생하였고 ISP가 5G 발전 명분을 내세워 망 중립성 완화를 요구하여 논란 가중

- 페이스북,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로 인한 트래픽 급증으로 ISP와 CP 대립 및 망 중립성 이슈 부각
 - 망 중립성*은 정보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하여 인터넷의 확산과 다양한 CP(콘텐츠 제공 사업자)**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나, 페이스북, 넷플릭스 등 글로벌 SNS와 OTT가 발생시키는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ISP(인터넷 서비스 사업자)***와 대형 CP간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망 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 발생
 - * ISP가 특정 콘텐츠나 기업에 대하여 전송 속도, 요금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
 - ** 인터넷 상에서 뉴스,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, 넷플릭스, 네이버, 카카오 등이 있음
 - ***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며, 국내에는 SKB, KT, LGU+ 등이 있음
 - '16년 페이스북은 국내 ISP와 망 이용료를 놓고 대립하였고, 현재 연간 150억 상당의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국내 ISP에게 불리한 수준으로 평가
 - '20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인터넷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면서 망 이용료를 둘러싼 국내 ISP와 글로벌 CP간 대립 재점화*
 - * SKB는 넷플릭스 이용자 증가로 해외망 증설 등 망 유지 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넷플릭스 측에 망 이용료 요구했으나, 넷플릭스는 고객이 요금을 부담하므로 이중청구이며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

이동통신사 LTE 국내외 서비스 트래픽 비중 (상위 10개 CP 대상)

구분	SKT	KT	LGU+	합계
국내 CP	36.6%	29.4%	27.8%	32.5%
국외 CP	63.4%	70.6%	72.2%	67.5%

자료 : 전자신문('19.9.24), "글로벌CP, LTE 데이터 트래픽 70% 유발"

- ISP는 5G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망 중립성 완화를 주장하나 CP는 부작용 우려
 - ISP는 5G 관리형 서비스* 지정과 제로레이팅** 확대를 위하여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
 - * 망 중립성에서 제외되어 트래픽 차별이 허용되는 서비스로, ISP는 자율주행차, 원격의료 등 민감 서비스에 대한 5G 속도 차별 허용 요구
 - **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CP가 부담하는 것으로,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요금이 무료화 또는 할인됨
 - CP는 망 접속료 증가, 콘텐츠 시장 경쟁 저해, ISP의 영향력 비대화를 우려하여 망 중립성 완화에 반대

□ 넷플릭스법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, 한국은 5G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망 중립성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

- 넷플릭스법은 글로벌 CP의 높은 협상력과 ISP의 미온적 태도로 실효성 의문
 - SKB와 방통위는 국내 CP는 망 이용료를 부담*하는데 해외 CP는 부담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자 해외 CP의 무임승차라고 주장하였고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수용하여 망 중립성 완화 성격을 띠는 넷플릭스법** 제정
 - * 네이버는 연 700억, 카카오는 연 300억 상당의 망 이용료 지급중
 - ** ISP 뿐 아니라 대형 CP에도 인터넷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, '20년 5월 국회 통과함
 - 넷플릭스법 제정으로 ISP는 글로벌 CP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 확보하였으나,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*
 - * 방대한 콘텐츠를 가진 글로벌 CP는 국내 ISP보다 우세한 협상력을 지니며, KT·LGU+는 IPTV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휴중인 바, 망 이용료 요구에 소극적
- 세계적 흐름과 정부 정책 감안시 한국은 망 중립성 완화 전망
 - 미국은 통신사의 5G 인프라 투자와 다양한 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고자 '18년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였고, 유럽은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예외 인정 등 망 중립성 완화 기조
 - 한국은 인터넷 생태계의 안정을 위하여 망 중립성은 유지하되, 5G 투자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*와 세계적 흐름을 감안시 관리형 서비스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
 - * '20.6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에 5G 국가망 확산, 전 산업 5G-AI 융합 확산 포함

국제금융시장 8월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
 정대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달러화는 미국의 장기통화정책 전환 계획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시현하였으며, 원/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달러화 약세의 정도보다는 소폭 하락
- ◆ **(금리, 주가)** 미국 10년물 금리와 선진국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확장기조 유지 기대감 등으로 대체로 상승추세

□ **(환율)** 달러화 가치는 재정정책 불확실성, 연준의 새로운 통화정책전략 발표 등으로 하락하였으며, 원/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하락세 시현

- 달러 인덱스*는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,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계획 등으로 '18.5월 이후 최저치 기록
 - 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 - 파월 의장은 27일 잭슨홀 컨퍼런스*에서 “장기간에 걸쳐 평균 2% 물가목표를 달성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계획을 발표
 - *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움으로 중앙은행 정책 결정자와 학자들이 참석하여 경제 상황 및 통화정책 등에 대해 논의.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2차, 3차 QE를 발표하는 등 연준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활용
 - 이는 향후 물가상승률이 2%를 상회하여도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,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
- 엔화는 월중 약세압력이 다소 우위를 보였으나, 28일 아베 총리 사임 발표 이후 강세로 전환*하였으며 31일 강세가 일부 진정되며 전월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
 - * 엔화 약세, 주가 강세로 대변되는 아베노믹스와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가 안전자산인 엔화 강세로 연결
- 유로화는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에 따른 강세를 시현하였으며, 이에 따라 달러/유로 환율은 '18.5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

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7월말	'20.8월말	전월대비
달러 인덱스	96.140	96.479	93.470	92.170	△1.39%
엔/달러	109.61	108.66	105.87	105.91	+0.04%
달러/유로	1.1456	1.1219	1.1772	1.1936	+1.39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- 원/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 강세*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산, 수출 개선 지연, 외국인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제한
 - * 24일 미-중은 무역합의를 지속하기로 합의, 위안/달러 환율이 1월 이후 처음으로 6.8위안/달러대로 진입
 - 수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제전망이 악화*
 - * 27일 한국은행은 '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$\Delta 0.2\%$ (5월)에서 $\Delta 1.3\%$ 로 하향조정(1.1%p ↓)
 - 7월 순매수를 나타냈던 외국인 주식투자는 순매도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31일에는 코스피 역사상 1일 최대규모의 순매도(1.6조원)를 기록

원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7월말	'20.8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	1,115.7	1,156.4	1,191.3	1,187.8	$\Delta 0.29\%$
원/엔	1,017.9	1,064.2	1,124.8	1,121.1	$\Delta 0.33\%$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공급물량 확대, 잭슨홀 컨퍼런스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추세 시현

- 월 전반 미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매도세 강화로 주요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한 데 이어, 월말 파월 의장의 물가와 실업률 관련 발언에 의해 추가 상승
 -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물가상승목표에 대한 완화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*됨에 따라 경기 낙관론 확산
 - * 일정기간 물가상승률을 평균 2%로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상회하더라도 용인하며 고용 확보를 모색할 수 있는 평균물가목표제(AIT: Average Inflation Targeting) 개념 제시

□ (주가) 미국·유럽·일본 등 선진국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세

- 미국 기술주 등 성장주의 가격 상승이 경기회복 기대심리, 잭슨홀 컨퍼런스 등과 맞물려 미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등 선진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
 - 특히 미국은 S&P500과 나스닥 지수가 8월 사상 최고가*를 경신
 - * (S&P500) 18일 종가 3,389.78로 2.19일자 전고점 3,386.15 경신 | (나스닥) 월초부터 신고가 행진 (3월 10,902.80 → 31일 11,775.46)

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

		'18년말	'19년말	'20.7월말	'20.8월말	전월대비
금리 (%)	미국채 10y	2.6842	1.9175	0.5282	0.7048	+17.66bp
	독일채 10y	0.2420	-0.1850	-0.5240	-0.3970	+12.70bp
	일본채 10y	0.0030	-0.0110	0.0200	0.051	+3.10bp
주가 (pt)	다우존스	23,327.46	28,538.44	26,428.32	28,430.05	+7.57%
	유로 Stoxx 50	3,001.42	3,745.15	3,174.32	3,272.51	+3.09%
	Nikkei	20,014.77	23,656.62	21,710.00	23,139.76	+6.59%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시장 9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
 정대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달러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, 원/달러 환율은 상승 요인과 하락요인의 혼재로 박스권 내에서 등락할 전망
- ◆ **(금리, 주가)** 장기금리와 주가의 상승세 지속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가운데 코로나19, 미 대선, 미-중 관계, 연준의 구두개입 등 외생변수에 따른 불확실성 병존

□ **(환율) 달러화의 약세 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예상되며, 원/달러 환율은 대외적 하락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 개선 지연 등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전망**

○ **달러화 : 추가 약세 가능성은 제한적**

-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통한 금리인상 지연 시사,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 약세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나 약세 속도는 조절될 전망
- 미국 제조업 경기 개선*, 달러/유로 환율에 대한 ECB 관계자의 개입성 발언** 등이 추가 약세를 제한하는 요인
- * 8월 제조업 PMI(9.2일 발표)는 신규 수주 증가에 힘입어 56.0을 기록, 이는 '18.11월(58.8) 이후 최고 수준
- ** 9.1일 ECB의 필립 레인 수석이코노미스트가 "달러/유로 환율은 중요하다(Euro-dollar rate does matter)"고 언급하며 유로화 강세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자 달러/유로 환율이 하락(유로화 약세)
- 한편, 미국 추가부양책 결정 시 그 내용에 따라 달러화 방향성이 달라질 전망

○ **엔화 : 소폭 약세**

- 아베 총리 사임 발표 이후 엔화 강세가 나타났으나 미-일 금리차*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은 엔화의 추가 강세를 제약하는 요인
- * '18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과 기타국 간의 금리차 확대가 달러화 강세를 견인하였으며, 미-일 금리차 축소는 일반적으로 달러화 약세, 즉 엔화 강세 요인
- 코로나19로 일본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기존의 정책기조(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)가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

○ **유로화 : 추가 강세 가능성은 제한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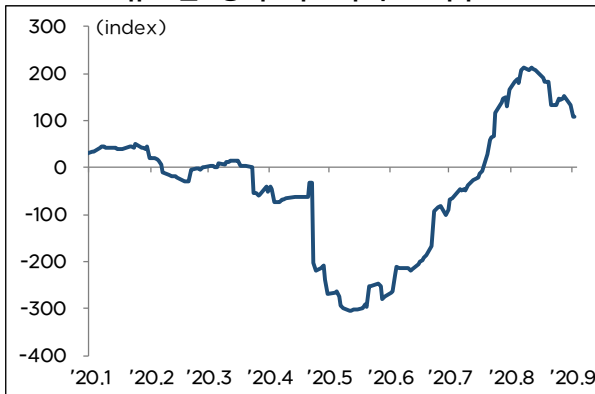
-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, 경제지표 개선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유로화 추가 강세를 위한 동력이 부족한 상황
- 유로존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(Economic Surprise Index)*는 5월 이후 EU 경제회복기금 기대로 반등하였으나 8월 중 하락세로 전환

* 경제지표에 대한 시장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실제 발표된 수치의 괴리를 수치화한 지표로, 경제지표 실제치가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플러스[+], 못 미칠 경우 마이너스[-]로 표시

- 낮은 수준의 유로존 물가지표*도 유로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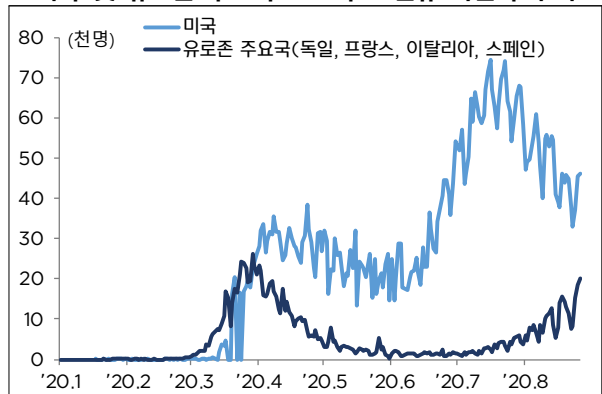
* 9.1일 발표된 8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(CPI) 상승률은 $\Delta 0.2\%$, 근원 CPI 상승률은 0.4% 를 기록

유로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



자료 : Bloomberg

미국 및 유로존 주요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



자료 : WHO

○ 원/달러 환율 : 박스권 내 등락

- 달러화 약세, 위안화의 안정적 흐름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, 수출 회복 지연,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에 의한 부정적 영향 상존
- 다만,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

□ (금리, 주가) 장기금리와 주가의 8월 상승세 지속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

○ 금리 : 장기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

- 팬데믹 대응 현황, TV 토론 등 미 대선 레이스 본격화, 미-중 관계 전개 양상 등 주요 외생변수들이 공존하며 장기금리 불확실성 지속

○ 주가 : 상승세 지속 여부 관련 다양한 전망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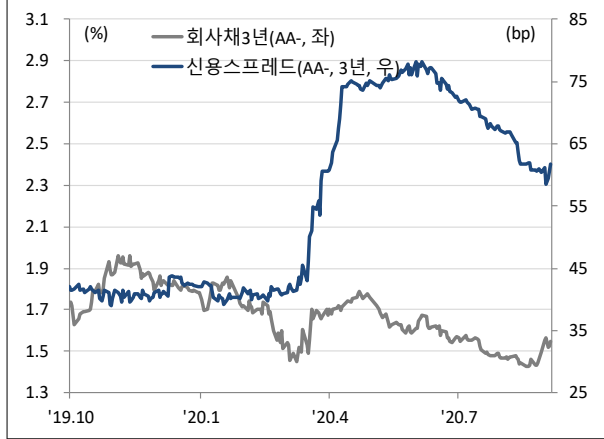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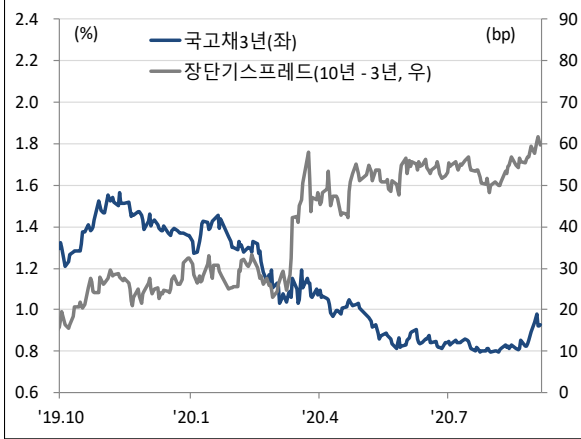
- 증시 과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9월 FOMC(15~16일)에서 잭슨홀 컨퍼런스(8월) 결과에 대한 부연* 등 정책 시그널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

* 연준의 이중책무(Dual Mandate: 물가안정과 고용증진)도 '금융시장안정'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에 대하여 '금융시장안정'의 구체적인 척도에 대한 추가설명 여지가 존재

(담당자 : 환율 - 김혜진, 금리-주가 - 정대형)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금리 국고채3년 0.929% (3.6bp ↑), 신용스프레드 61.8bp (1.4bp ↑)



환율 원/달러 1,189.6원 (5.3원 ↑), 엔/달러 106.24엔 (0.61엔 ↑)



주가 코스피 2,368.25pt (0.61% ↑), 코스닥지수 866.04pt (2.94% ↑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894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